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94만4000㎡ 규모...에너지 신산업 중심 산단 본격 조성 혁신도시 연계...유통·주거 등 자급자족형 복합산단으로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광주시는 2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이 될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업단지 94만400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단은 총면적 94만4000㎡ 규모로 2016년 12월에 착공한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더불어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배후 산단

이자 지역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중심 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이번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구 도시첨단 지방산단은 융복합 소재분야인 전력변환기술(HVDC), 에너지 저장시스템, 배전 자동화시스템, 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에너지 변환·저장·통합 기술기업이 집적화되며, 이를 통해 광주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남구 도시첨단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주에스디전자 등 53개 기업

이 실 입주를 위한 토지매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에너지 관련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의 투자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주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주분원 등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LS산전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은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 뿐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 유통, 지원 기능이 복합된 자급자족형 친환경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한편, 기업유치를 통해 3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경제적 효과, 1만5000명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산업용지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운영현 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제의 당위성을 건의하는 등 광주시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통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7~8개월 소요되지만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도시첨단 지방산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이 될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본격 조성됨에 따라 2017년을 에너지 신산업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올해 평균 연령 41.2세...9년새 4.2세 늘어 전남 44.7세 '최고'...광산구 36.0세 '가장 젊어'

농어촌지역 고령화로 전남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이 44.7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 시·군·구 가운데 가장 젊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9년 사이에 4.2세 증가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으로 처음 집계기 이뤄진 2008년 평균연령은 37.0세였으나, 2014년 처음 40대에 진입했고 다시 3년 사이에 1.2세 늘어났다.

시·도 중에서 가장 젊은 곳은 세종시로 평균연령이 36.8세였다. 울산(39.1세), 광주(39.2세), 경기(39.4세), 대전(39.6세), 인천(40.1세), 제주(40.6세) 등도 평균연령보다 젊은 인구구조를 보였다.

반면 전남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이 44.7세로 가장 높았고 경북(44.0세), 강원(43.7세), 전북(43.2세), 부산(42.9세) 등은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경향을 보였다.

2008년 첫 조사와 비교했을 때 평균연령이 줄어든 지역은 세종(3.6세 감소) 한 곳뿐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광주 광산구의 평균연령이 36.0세로 가장 낮았고, 경기 화성(36.1세), 오산(36.2세), 울산 북구(36.4세)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



힘들겠지만...대선 후보 면면 꼭 확인하세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20일 광주 북구 삼각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역의 한 아파트 담장에 대선후보들의 벽보를 붙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현안 특별법 제정...대선 정책 반영을”

여수박람회장에 공공기관 첫 입주...5월 해양연구센터

시민단체 연대 회의 등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선 정국을 맞아 지역 현안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전남 21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 민단체연대회의와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의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여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또 국가산단의 환경오염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광양만권 환경·안전 개선 및 노동자·주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주문했다.

이외함께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를 구현하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박람회장) 유치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 전남 ‘사회복지장’ 신설,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입주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해양과 해안지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의 해양 연구센터가 박람회장 국제관에 오는 5월 입주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연구센터는 국립공원 내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센터다. 해상국립공원의 해양생물 다양성, 서식지 유형과 유형별 주요 자원 현황, 주요 거점지역 자원관리, 탐방객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한다.

재단은 국제관 B동과 D동의 총 831㎡를 해양연구센터에 임대하기로 했다. 해양연구센터는 국제관 B동을 사무실로, D동을 실험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박람회재단은 지난 2월부터 임대료 할인, 계약 기간 연장, 임대료 납부 방식 등 임대조건을 대폭 개선해 연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센터가 입주하면 2020년 개관 예정인 청소년해양교육원과 함께 박람회장이 해양교육의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람회장에 입주하는 첫 공공기관인 해양연구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직장인 844만명 건보료 13만3천원 더 낸다

작년 보수 인상분 반영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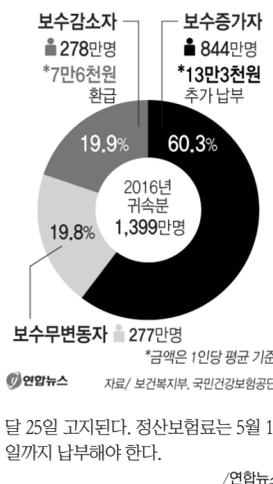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000원 더 내게 됐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 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앞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임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